



**새천년, 21세기 희망을 갖자
기록과 유물보존 철저히**

우리는 하루 사이에 타임머시인을 타고 온듯한 세기를 뛰어넘었는가 하면, 또 다른 새천년에 도착하게 되었다.

양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했던 20세기의 양계업은 이제 역사속으로 묻히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선진 양계업을 영위해 가야 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은 대단한 각오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600백여년전에 널리 만들었던 청자의 제조법을 알 길이 없는 것이나, 100여년전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눈

에 집히는 기록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양계업의 역사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불과 지난 20세기 중 30여년의 양계 역사가 유물 보존은 커녕 분명한 기록이 제대로 없다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인간은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애당초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체계화된 과거의 양계 역사가 없다는 것은 미래를 그만큼 정확히 볼 수 없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해 온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난 20세기까지 반복해 온 과거의 구습은 버

렸으면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정보통신, 하기가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을 나와 첫 울음을 울게 되면서부터 세대차를 느낀다고 표현할 만큼 변화는 빠르다 못해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적응이 안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뀐 계란값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는 양계인을 볼 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세기초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새천년, 21세기는 그야말로 도전의 시대이다. 과감한 경영관리 의욕이 없으면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좀 냉혹한 세기가 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수집이 어렵다면 부지런히 날아들어 오는 인쇄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주변환경을 민감히 받아들여야 살 수 있을 것이다. 수입 계란과 닭고기가 시장에 넘쳐나는데도 출하가를 올리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는 경영관리자는 머지않아 원시인의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모든 변화가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숨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비하고 연구하는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한다. 첫 출발부터 희망을 가지고 21세기의 풍부한 기록과 유물보존을 통하여 좀더 나은 미래를 관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원한다.

생산성 향상과 사양관리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

“배워서 남주라”라는 농담이 있다. 양계업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론과 실체는 물론 주변 관련 분야의 흐름까지 이해 정도가 넓어야 경영지표를 세울 수가 있다.

일부에서 양계업을 주식투자하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열중 아홉이 손해보고 만다는 사실을 볼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양계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관하되 사업 변경이나 투자 시점을 적기에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양계업자들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투자적기를 잘못 잡아 가정이 평지풍파가 이는 경우도 많았다. 요행을 바랐기 때문이다. 양계업이 당분간은 마진이 자꾸만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여 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부실이 정비되면 가격이 안정되어 다시 규모 확장이 반복될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아닌가 한다.

변화는 하는데 양계인들의 관심이 적으면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사료생산 실적이 증가하고 종계가 증가하는 데에도 생산량 증가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요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양계산물의 생산량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생산자들이 입추량을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차라리 정확한 생산량 예측치를 공표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알아서 입추를 조절하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인들이 단합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자료제공자의 성실도가 가장 큰 관건이다. 다음은 분석해 낸 자료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 해결점 없이 어렵다는 푸념보다는 무엇인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대처한다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불황을 막자 되풀이 되는 일 없게

계란과 닭고기, 병아리가 양계산물의 모두라 할 수 있다. 우선 품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예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

병아리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용계업자이다. 정부의 통계를 빌자면 많아야 1만 농가 이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수급은 예측불허 상황에 빠져 부실 부화장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심각한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보다 계란과 닭고기는 수급조절이 더욱 어렵다. 소비자가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계의 경우에는 출하되는 닭이 유통업자나 계약사육에 의해 모두 도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수요예측이 다소 수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를 통해서 보면 우선 도계장이 연간 사업계획이 닭고기 소비량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어 도계장의 자체 사업계획이 육계농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왔던게 사실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실용계 농장도 유통상인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상인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계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출하계획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져 있다.

이제 각 부분마다 연간 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목표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납품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하면 이득을 제3자에게 돌리려는 안일한 발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의 시발점이다. 합법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사업활성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먹이사슬 관계 법칙에 따라 그때 그때 강자가 약자에게 이득을 강요하는 유통이 보편화 되어 있고, 양계인들도 평생 이런 점에 길들여져 오히려 상인이 요구하는대로 따라주는 것이 편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새해부터는 실용계 농장이건, 유통상인이건, 도계장이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통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양계산업이 유통의 개선 없이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된 일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었다. 선진 외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유통이 정착되어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손실이 커지고 있다. 즉 생산자와 상인간에 잦은 마찰로 불신의 골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거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좀더 생산자들이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양계**